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작문 시간에 글짓기하느라 힘들셨죠? 작문 선생님도 첨삭 지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지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주신 첨삭 내용을 받고도, 거기 적힌 교정 부호를 잘 이해하지 못해 곤란해하더군요. 교정 부호는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약속된 부호인데요, 이 부호를 정확히 알아야 글쓴이와 검토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교정 부호의 쓰임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화면 1'을 보여 주며) 먼저 알파벳 V자처럼 생긴 부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띄어쓰기 부호이고, 두 글자의 위쪽을 둥글게 잇는 이 부호는 붙여쓰기 부호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교정 부호가 아닐까요? (화면 2'로 전환하며) 이 부호는 잘못 쓴 글자를 고칠 때 사용합니다. 잘못 쓴 글자에 동그라미를 친 후, 선을 그어 바른 글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이렇게 동그라미에 돼지 꼬리가 붙은 것처럼 생긴 부호는 해당 글자를 빼라는 의미입니다. (화면 3'으로 전환하며) 이 부호는 띄어쓰기 부호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벌어진 부분에 빠진 글자를 써넣을 수 있도록 조금 큰 V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넓적한 대야처럼 생긴 이 부호는 연이은 글자들을 고칠 때 사용합니다. 틀린 글자 위에 대야 모양을 그린 후 수정할 글자들을 대야에 담은 것처럼 써넣지요. (화면 4'로 전환하며) 글자를 한 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라는 의미의 교정 부호는 두 부호의 방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글자가 방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부호는 글자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한 칸 들여 쓰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호는 문단의 시작 부분에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한 부호는 이와 반대로 글자들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지요? (화면 5'로 전환하며) 줄을 바꾸라는 부호와 이으라는 부호는 산문 형식의 글에서 문단을 나누거나 이을 때 자주 쓰입니다. 이 부호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문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자, 이제는 교정 부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교정 부호는 평생을 두고 활용하게 될 유용한 부호이기 때문에 잘 익히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새 화면을 제시하며)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대상의 장점을 나열함으로써 대상의 활용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②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강연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화면이다. 강연을 들은 학생이 첨삭 원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을 보니, 두 부호는 그 위에 글자가 쓰여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기능을 구별해야겠군.
 - ② ㉢과 ㉣을 보니, 틀린 글자가 몇 글자인지에 따라 두 부호를 선택해서 써야겠군.
 - ③ ㉤을 보니, 한 문장이 다음 줄로 이어질 경우 첫 칸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군.
 - ④ ㉥을 보니, 큰따옴표가 쓰인 문장은 새로운 줄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군.
 - ⑤ ㉦과 ㉧을 보니, 이 글은 교정 후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었군.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가지 교정 부호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시된 교정 부호 외에 다른 부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교정 부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교정 부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③ 글을 수정할 때 교정 부호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정 부호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인가요?
 - ④ 교정 부호로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하셨는데, 논술 시험의 답안지에도 교정 부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⑤ 교정 부호의 모양과 그 모양에 따른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호에 대한 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나요?

[4~7] (가)는 학생이 '작문 계획'에 따라 쓴 독서 감상문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사회자가 되어 진행하는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작문 과제 : 자신에게 필요한 한 권의 책을 골라 읽고 쓰기 맥락을 고려하며 독서 감상문을 쓴다.
- 독서 대상 : 『광고의 이해』
- 작문 목적 : '광고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고르고, 토의의 사전 준비와 겸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한다.

(가)

『광고의 이해』라는 책을 고른 것은 광고를 주제로 열리는 학교 토의 마당의 사회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도서관 신간 안내 게시판에서 이 책의 소개 글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작문 과제와 맞물려 토의의 사전 준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저 없이 이 책을 뽑아들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광고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었다. 책에 제시된 “광고야말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낸다.”라는 극찬과 “광고를 보는 것은 번기에 머리를 넣는 것과 도덕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경고는 그 상반된 인식을 확연히 보여 주었다.

광고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는 제작비가 비싸서 자본이 많은 대기업의 홍보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광고는 새로운 상품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대기업의 독과점을 없애 준다는 의견이 맞았다. 그리고 광고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광고가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는 비판은 광고계가 꾸준히 자정 노력을 한다는 의견과 대립했다. 토의에서 친구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미리 보는 것 같아 흥미진진했다.

광고가 신화를 만들어 낸다는 책 내용은 TV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값비싼 물건이 안겨 주는 행복’이나 ‘아름다움의 비상식적인 기준’ 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광고가 넘쳐 나는 것을 보며 책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광고에 대한 이해가 한층 넓어진 것 같아 뿌듯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토의 사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한층 커졌다. 이번 독서 경험이 다가올 토의 마당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

사회자: 요즘 우리 사회를 광고의 홍수라 표현하기도 하던데, 오늘 ‘학교 토의 마당’에서는 광고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 학생이 말씀해 주시죠.

학생 1: 큰 건물 벽면, 움직이는 버스, 심지어 작은 종이 컵까지 광고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부작용을 낳지만, 특히 소비자의 과소비를 조장합니다. ‘유행’에 휩쓸려 쓸데없이 지갑을 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A] 사회자: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사고를 막는다는 거군요. 광고를 보는 것을 번기에 머리를 넣는 것과 비슷하다며 비판한 학자도 있는데, 광고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네요. 이에 대한 강△△ 학생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 2: 광고는 양극화를 심화합니다. 자본이 적은 기업은 광고 제작에서 자본이 많은 기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광고는 대부분 대기업 광고거든요.

사회자: 두 분 모두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군요. 그런데 김○○ 학생,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인데 광고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B] 학생 1: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반드시 옷이 부족해서 일까요? 그것은 광고가 우리들에게 새 상품을 구매해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광고를 ‘인간에 대한 이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 학생, 최근 대기업이 제작한 기부 광고가 큰 감동을 일으켰는데, 이런 경우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C] 학생 2: 아프리카 촬영과 유명 배우 섭외 등 그 광고의 제작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고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요.

사회자: 광고계 내에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자정 노력이 있다던데, 그렇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학생 1: 광고계의 반성은 반갑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학생들은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광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강△△ 학생은 광고를 대하는 우리 학생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2: 무엇보다 광고의 이미지에 현혹되어 신형 자동차, 멋진 옷 등의 소유가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자: 오늘 토의를 통해 광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독서 감상문에 정형화된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 감상 동기를 제시하고, ㉡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 하며, ㉢ 인상 깊었던 내용을 담아 글을 전개한다. 특히 진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며 ㉣ 감상 대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 자신의 행동 변화 등을 언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통해 얻은 바를 제시하며 이후의 독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② 최근 독서 경험을 소개하며 이전의 독서와 다른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독서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며 폭넓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추가 자료를 활용하여 독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있다.
- ⑤ 독서 대상에서 확인한 정보의 검증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각 단계가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6. <보기 2>는 토의 사회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C]에 대한 상황 파악과 진행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토의의 사회자는 토의 전에 토의 진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토의에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해야 한다. 토의가 끝난 후에는 토의의 의의를 제시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보기 2>

[토의 상황 파악]	[토의 진행 전략]
㉠ 참여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자 하는군. ㉡ 참여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반대 의견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도 필요하겠군. ㉢ 참여자가 한 말 중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좀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군. ∴	㉠ 참여자가 했던 말을 재진술하며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겠군. ㉡ 토의 전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생각을 뒷받침해야겠군. ㉢ 참여자와 다른 의견을 소개하며 참여자가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군. ∴

	토의 상황 파악	토의 진행 전략
①	[A]	㉠
②	[B]	㉡
③	[B]	㉢
④	[C]	㉠
⑤	[C]	㉢

7. (나)에 나타난 토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상대방에게 반문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 1’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순으로 사례를 열거하며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핵심 내용을 먼저 밝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토의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게임의 변화’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최근 화제가 된 게임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 기술 발전에 따른 게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해야겠어. …… ㉡
- 미래에 등장할 게임은 어떤 모습일지 제시해야겠어. …… ㉢
- 게임에 쓰이는 기술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아야겠어. …… ㉣
- 게임과 관련한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언급해야겠어. …… ㉤

<초고>

최근 강원도의 한 도시에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 도시에 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 게임 때문이다. 그 게임은 실제 길거리를 다니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가상의 괴물을 찾아 잡는 게임이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컴퓨터는 계산을 위해 발명된 기계였고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다. 이후 집적 회로 기술이 개발되어 컴퓨터의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최초의 게임이 등장했다. 최초의 게임은 2차원의 딱딱한 그래픽을 배경으로 단순한 동작만 가능했지만, 집적 회로 기술이 점점 발달하자 3차원 화면에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게임이 나왔다. 그 뒤 인터넷 기술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 게임이 출현했고, 더 나아가 실제처럼 생생한 가상 현실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게임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게임이 등장하고 있다. 가상 현실이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증강 현실은 현실의 배경에 가상의 이미지를 합쳐서 보여 주는 것이다. 증강 현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별도의 장비를 통해 현실 속의 가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입체 영상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별도의 장비 없이도 현실에서 공룡이나 외계인의 입체 영상이 보이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술은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한국사 수업 중에 입체 영상 기술을 이용해 세종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겠는가?

게임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재미있는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자극하기도 한다. 장차 증강 현실 기술은 전시회나 박물관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다. 현명하게 즐길 방법만 찾는다면 게임은 첨단 기술을 먼저 접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8.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최초의 컴퓨터는 무게가 30톤, 길이가 30미터에 이르렀고 포탄의 탄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중략)... 얇은 판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 집적 회로 기술이 등장했다.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능력도 높아지는데, 최초의 집적 회로에는 트랜지스터가 1개만 들어갔으나 최근에는 1천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

- 과학 잡지 『○○○』 -

○ ㉢ 증강 현실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용자 주변의 ㉣ 공간과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센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 완전한 입체 영상을 제공하는 홀로그램 기술입니다.

- 전문가 인터뷰 -

- ① ㉠의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초기 컴퓨터의 용도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② ㉡의 발달과 관련지어 [A]에서 최초의 게임이 등장한 배경을 제시하였다.
- ③ ㉢과 대조 가능한 대상을 함께 제시하여 [B]에서 증강 현실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 ④ ㉣의 한계를 언급하며 [B]에서 증강 현실 기술의 실현이 느린 이유를 제시하였다.
- ⑤ ㉤의 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통해 [B]에서 증강 현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예측하였다.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편집부의 검토 의견]

초고 잘 읽었습니다. ([가])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단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물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임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은 이용자가 나타날 위험도 있지만, 게임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재미있는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자극하기도 한다. 현명하게 즐길 방법만 찾는다면 게임은 첨단 기술을 먼저 접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 ①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단어, 게임 산업의 경제적 가능성
- ②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게임 산업의 경제적 가능성
- ③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예상할 수 있는 게임의 부작용
- ④ 부적절하게 사용된 피동 표현, 예상할 수 있는 게임의 부작용
- ⑤ 부적절하게 사용된 피동 표현, 게임 개발을 더디게 만드는 규제의 문제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어떤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그 역할에 따라 형태소를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접사는 다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눌 수 있는데, 파생 접사는 단어의 파생에 기여하는 접사이고, 굴절 접사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즉 어미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치솟다’의 ‘치-’는 파생 접사, ‘솟-’은 어근이고 ‘-다’는 굴절 접사이자 종결 어미이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파생어이다. 파생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뉘지만 그 기능에 따라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로 나눌 수도 있다. 어휘적 접사는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접사이며, 통사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접사이다. 접두사에는 어휘적 접사가 더 많고, 접미사에는 통사적 접사가 더 많다. 예를 들면 ‘맨발’의 ‘맨-’은 어휘적 접두사이고 ‘낮추다’의 ‘-추-’는 통사적 접미사이다.

접미사에는 명사 파생 접미사, 동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가 있다. 예를 들면 ‘덜개’는 동사 ‘덜다’의 어근 ‘덜-’에 명사 파생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가 되었고,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동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되었으며, ‘멋지다’는 명사 ‘멋’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지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었다. 또 ‘조용히’는 형용사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에 부사 파생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되었다.

그런데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와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형태가 같아서 이 둘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명사 파생 접미사는 품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지만, 명사형 어미는 용언이 명사의 기능을 하게 해 주는 어미이므로 품사를 바꿀 수 없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치솟다’의 어간은 파생 접사 ‘치-’와 어근 ‘솟-’이 결합된 ‘치솟-’이 되겠군.
- ②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는 모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접사이군.
- ③ ‘가다’, ‘넓다’와 같은 단어는 어근과 굴절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므로 하나의 형태소만으로는 단어가 될 수 없겠군.
- ⑤ 어근은 단독으로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반드시 접사와 결합해야 단어가 될 수 있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헛고생, 헛소문, 헛돌다, 헛디디다
 ㉡ 괴롭히다, 넓히다, 밝히다, 좁히다
 ㉢ 멧쟁이, 사람들, 깨뜨리다, 더욱이
 ㉣ 깊은 잠을 잠, 좋은 꿈을 꿈, 춤을 춤
 ㉤ 같이, 길이, 깊이, 넓이, 높이, 많이

- ① ㉠의 ‘헛-’은 명사와 동사에 모두 결합하여 사용되는 어휘적 접두사이다.
- ② ㉡은 모두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어 주는 통사적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③ ㉢은 모두 어근에 어휘적 접미사가 결합하여 품사가 변하지 않은 파생어이다.
- ④ ㉣의 ‘-으’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같으므로 결합형인 단어의 품사도 같다.
- ⑤ ㉤의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가 모두 존재하므로 ‘같이, 높이’와 같은 파생어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을 보아야 알 수 있다.

13.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 생: 선생님, ‘젓가락’은 ‘ㅅ’ 받침을 쓰는데 ‘순가락’은 ‘ㄷ’ 받침을 쓰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선생님: ‘젓가락’과 ‘순가락’은 모두 ‘가락’ 앞에 다른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락’ 앞에 붙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받침을 쓰게 되었어요. 먼저 ‘젓가락’은 ‘가락’ 앞에 ‘저’가 붙은 것인데,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 ‘젓가락’으로 표기하게 되었어요. 반면, ‘순가락’은 같은 ‘가락’ 앞에 ‘한 술, 두 술’ 할 때의 ‘술’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따라서 ㉡ 끝소리가 ‘ㄹ’인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때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ㄷ’ 받침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의 단어들 중 어느 것이 ‘ㅅ’ 받침을 쓰고 어느 것이 ‘ㄷ’ 받침을 쓰는지 말해 볼까요?

㉠ 배+가죽 ㉡ 설-+부르다 ㉢ 보+득
 ㉣ 이틀+날 ㉤ 바느질+고리

학 생: _____ (가)

- ① ㉠은 ㉠에 따라 ‘ㅅ’ 받침을 써서 ‘뱃가죽’이라고 해야겠네요.
- ② ㉡은 ㉡에 따라 ‘ㄷ’ 받침을 써서 ‘설부르다’라고 해야겠네요.
- ③ ㉢은 ㉠에 따라 ‘ㅅ’ 받침을 써서 ‘뱃득’이라고 해야겠네요.
- ④ ㉣은 ㉡에 따라 ‘ㄷ’ 받침을 써서 ‘이틀날’이라고 해야겠네요.
- ⑤ ㉤은 ㉠에 따라 ‘ㅅ’ 받침을 써서 ‘반짓고리’라고 해야겠네요.

14. <보기>는 표준 발음법 제10항, 11항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것은?

<보 기>

제10항 겹받침 ‘ㄸ’, ‘ㅌ’,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예) 낫과[낙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골], 핥다[할따], 없다[업:따]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ㄴ]으로 발음한다.
 예) (1) 밭다[밭:따], 밭소[밭:쏘], 밭지[밭:찌], 밭고[밭: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제11항 겹받침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ㅋ, ㅍ]으로 발음한다.
 예) 닭[닥], 흙과[혹과], 삼[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맑게[말께],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① 그 책을 읽지[익찌] 않았다.
- ② 너는 팔과 다리도 얹다[압따].
- ③ 이제는 늙고[늑꼬], 병이 들었다.
- ④ 우리 학교 운동장이 참 넓다[넙따].
- ⑤ 실이 단추를 꿰매기엔 너무 굵다랗다[굴따라타].

15. 다음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 ‘-더-’, ‘-던’을 사용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ㄱ.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ㄴ. 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ㄷ.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ㄹ. 영희는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
 ㅁ. 컵에는 철수가 마시던 우유가 남아 있었다.

- ① ㄱ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구나.
- ③ ㄷ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구나.
- ④ ㄹ을 보니,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쓰이는구나.
- ⑤ ㅁ을 보니, 어말 어미 ‘-던’은 어떤 일이 과거에 이루어지다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을 때 쓰이는구나.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영동은 전기장 안에서 ㉠ DNA 같은 생체 분자를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크기가 다른 조각들로 분리시키는 실험 방법이다. 생체 분자들은 음전하나 양전하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것들을 담근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에 따라 전하량이 정해진다.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전기장 속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때 DNA 시료*는 ‘겔’이라는 그물처럼 생긴 망상 조직을 통과하면서 조각들로 분리된다.

생체 분자 시료를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이동시키는 힘인 전기력은 그 시료의 총 전하량과 실험자가 설정한 전기장 세기의 곱으로 결정된다. 시료의 총 전하량이 클수록, 장치에 설정한 전류와 전압이 클수록 시료를 이동시키는 힘도 더욱 커져서, 결국 시료 전체의 이동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나 용액의 이온 강도를 높여서 총 전하량을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전기장 세기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겔이 열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시료의 원래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자들은 용액의 이온 강도를 적당히 조절하고 전류를 100mA 이하, 전압을 500V 이하로 낮추어 실험을 수행한다.

그런데 DNA 시료가 두 극 사이를 움직일 때 통과해야 하는 겔은 시료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마찰력을 발생시킨다. 이 마찰력의 크기는 시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들 크기에 비례한다. 시료의 개별 조각들의 크기가 클수록 분자량*도 크기 때문에 더 큰 마찰력이 작용하여 그만큼 이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양극 간의 전압 차이에 의해 시료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분자량이 큰 조각일수록 먼저 분리되고 분자량이 작은 조각일수록 늦게 분리된다. 이처럼 전기영동은 전기력과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분리하고자 하는 조각들의 분자량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활용한다.

DNA 조각의 분자량이 같더라도 그 형태에 따라 이동성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DNA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산은 다시 네 종류의 염기, 당의 일종인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옥시리보스와 인산이 인산 결합하여 DNA의 두 가닥 뼈대를 형성하고, 이 두 뼈대에 각각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수소 결합함으로써 나선 모양으로 꼬인 DNA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란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중 나선 구조를 띤 DNA를 열이나 효소로 변성시키면 상보 결합이 풀린 두 가닥의 뼈대가 되거나, 닫힌 원 모양의 DNA 형태가 선형의 DNA 형태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영동으로 분리시키려는 DNA 시료는 대부분 열과 효소 등으로 변성시킨 후에 사용한다. 그리고 분자량이 동일한 경우 이중 나선 구조의 DNA보다 선형의 DNA가, 선형의 DNA보다 상보 결합이 풀린 DNA가 이동성이 더 좋다.

한편, 조각들의 분자량이나 형태 외에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겔의 점성도이다. 겔의 점성도는 겔의 농도에 비

례하는데, 겔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겔의 구멍 크기는 더 작아져 겔의 점성도가 높아지고 결국 마찰력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조각들을 정밀하게 분리할 때에는 겔의 농도를 높이고, 크기가 큰 조각들을 분리할 때에는 겔의 농도를 낮추는 식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조각들의 크기에 따라 겔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리하고자 하는 조각들의 분자량에 따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겔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생화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가로스 겔은 5백 개 이상 5만 개 이하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크기가 큰 DNA 조각들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아크릴아미드 겔은 1~700개 사이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크기가 작은 DNA 조각들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한다.

* 전해질: 용매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물질.

* 시료: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 분자량: 탄소 분자 질량을 기준으로 한 다른 분자의 상대 질량.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겔의 농도를 높일수록 겔의 구멍 크기는 작아진다.
- ② DNA의 인산 결합은 수소 결합에 비해 열에 강하다.
- ③ 염기 수가 1,000개인 DNA 조각의 분자량이 염기 수가 500개인 DNA 조각의 분자량보다 크다.
- ④ 분자량이 동일하고 형태가 다른 경우, 선형의 DNA가 전기영동 장치의 겔을 가장 빠르게 통과한다.
- ⑤ 열과 효소 등으로 DNA 시료를 변성시킨 후에 전기영동으로 해당 시료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다.
- ② 형태가 동일하면 염기의 배열 순서도 동일하다.
- ③ 디옥시리보스와 인산을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 ④ 열이나 효소에 의해 원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
- ⑤ 상보 결합을 통해 두 가닥의 뼈대가 연결되어 있는 생체 분자이다.

18. 윗글의 ‘전기영동’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류를 100mA 이하로 설정하면 시료의 원래 구조가 파괴된다.
- ② 시료의 전하량은 전기영동 장치에 설정한 전압의 크기로 조절한다.
- ③ DNA 시료는 전기영동 장치의 전기장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 ④ 시료를 이동시키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를 시료의 총 전하량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를 높일수록 시료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겔의 농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한 실험을 통해 동일한 DNA 시료를 분리한 결과이다.

- A~C에 주입된 겔은 모두 아가로로스 겔이다.
- A~C의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는 동일하며, B의 겔 농도는 10%이다.
- A~C에 표시된 숫자는 각 겔에서 분리된 DNA 조각들의 염기 수이다.
- 분리된 DNA 조각들의 염기 수의 단위는 100개이다.
- DNA 조각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

- ① A~C 중에서 시료에 작용하는 겔의 마찰력은 C에서 가장 작겠군.
- ② A~C의 경우 모두 염기 수가 가장 많은 DNA 조각이 가장 멀리 이동하였군.
- ③ A~C 중에서 염기 수가 가장 적은 DNA 조각이 C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아, C의 점성도가 가장 낮겠군.
- ④ A~C 중에서 동일한 DNA 조각들 사이의 간격이 A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아, A의 겔 농도는 10% 이하이겠군.
- ⑤ 동일한 DNA 시료를 농도 10%의 아크릴아미드 겔로 분리하면 B에서의 조각들 간의 간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군.

[20~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 재산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디자인이나 발명, 상표에 대한 권리인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 재산권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이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된다는 것은, 실제 물건으로 ㉡ 구현되지 않아도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적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산업은 공업이나 제약업, 농수산업 같은 제품 생산업과 운송업이나 교통업 같은 보조 산업을 뜻하며, 의료업, 보험업, 금융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그 발명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선행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 기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TV, 잡지, 논문,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하는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비해 현저하게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통해 기술 발전을 ㉢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그 발명을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이 많이 창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발명과 같은 지적 생산물은 ㉣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처음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인 배제 불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비경합성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그것을 생산·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 편승하여 소비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즉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는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런 재화는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생산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 부여는 기술 진보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여 ㉥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일시적으로 독점 시장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도 이 기술을 ㉦ 습득하여 경쟁자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특허권은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일정 기간만큼 연장하여 유지하게 해 준다. 이러한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가져 스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특허권 제도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런 독점적인 특허권을 얻기 위해 동시에 여러 기업들이 중복 투자나 과잉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이 특허권 제도가 초래하는 ㉧ 사회적 비용이다.

2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 부여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② 특허 제도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특허 제도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보완할 만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적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 ⑤ 특허권이 부여되는 지적 생산물의 성격을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은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특허청이다.
- ③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④ 특정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⑤ 다른 나라의 TV를 통해 방영된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2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우리나라 특허청’의 판단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외국 제약 회사 A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약 α의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였다. 신약 α는 인간의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임상 실험 결과 이전의 다른 치료제에 비해 다소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몇 가지 이유로 A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약 α가 그것의 제조 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 회사 B의 의약품 β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β의 제조 공정과 비슷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 별도의 사용료 지불 없이 여러 제약 회사에서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다.

- ①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② 신약 α의 효과가 선행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현저하게 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③ 신약 α의 제조 공정이 아니라 신약 α라는 제품 자체를 특허권 신청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④ 신약 α의 제조 공정은 의료업에 속한 것이므로 특허권 부여 조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⑤ 제약 회사 A에 신약 α에 관한 특허권을 부여하면 기존의 의약품 β를 만드는 제약 회사 B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23. 밑글의 [공공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단 생산되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 ②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므로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다.
- ④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동기 부여 제도가 없으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⑤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지만 일단 만들게 되면 만든 사람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 준다.

24. 밑글의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촉진하여 ㉠을 증가시키는 것도 특허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에 포함된다.
- ② 특허 제도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손실이라는 ㉡을 초래하기도 한다.
- ③ 특허 제도를 통해 기술적 사상의 발명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 특허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진입 장벽 역할을 하여 신기술의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보다 ㉠이 커질 수 있는 이유이다.
- ⑤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보다 ㉡이 커질 수 있다.

25.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골라 짝 지은 것은?

<보 기>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되는 수준에서 특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특허 기간이 늘어나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더 오래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발명을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반면 특허권을 얻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많아지고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도 커지므로 사회적 비용도 (㉡)한다. 게다가 기술 확산의 저해로 인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므로 사회적 비용 증가세가 점차 (㉢) .

	㉠	㉡	㉢
①	극대화	감소	완만해진다
②	최소화	증가	급격해진다
③	극대화	증가	급격해진다
④	극대화	증가	완만해진다
⑤	최소화	감소	급격해진다

2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녀는 그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 ② ㉡: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③ ㉢: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 ④ ㉠: 형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집 장사를 시작했다.
- ⑤ ㉡: 그는 길에서 습득한 지갑을 파출소에 맡겼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땃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 희살짓는다: 짓궂게 훼방 놓는다.

(나)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다)

요즘 ㉤ 나는 시를 쓰지 못한다. 어디선가 날개가 꺾였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어디선가…….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날개는 내 숨은 의지에 의해서 꺾인 것이다. ㉥ 삶을 위해 삶의 가장 소중한 빛을 지워버린 것이다. 바라볼수록 쓸쓸한 그 빛…….

이럴 때 순천만의 하늘 위에는 무수한 별빛이 빛난다. 과거를 회상하는 버릇은 가슴 안에 깊은 말뚝을 지닌 모든 슬픈 짐승들의 운명 같은 것이다. 줄에 매달린 염소처럼 그들은 말뚝에 매인 밧줄 바깥의 세상으로서는 나갈 수 없다.

시 쓰기에 빠져들던 문학청년 시절, 내게 가장 행복했던 시

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름씩, 한 달씩 지낸 시간들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세 달쯤 말을 앓고 지낸 적이 있다. 내 몸 안의 가장 든든한 기둥 위에 ‘묵언’이라는 패찰을 드리워 놓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들.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만 열려 있던 시간들. 타인의 꿈과 욕망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시간들.

한없이 고요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나의 시들이 천천히 날갯짓하는 것을 보았고 가능한 그 날갯짓이 더욱 격렬해지기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연민과 지혜와 열정을 지니기를 나는 바랐다. 그리하여 내 시가 어떤 사랑스럽고 순정한 광기의 언덕에 이르러 고단한 날갯짓을 멈추기를, 그곳에서 여유롭게 비행하며 새로운 언덕을 다시 꿈꾸길 바랐던 것이다. 그 무렵의 내게 침묵은 날개의 다른 이름이었다.

불빛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저 불빛은 화포의 불빛이고, 저 불빛은 거차의 불빛이며, 저 불빛은 와온 마을의 불빛이다. 하늘의 별과 순천만 갯마을의 불빛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나는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가 하는 싱거운 생각에도 잠겨 본다.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 나의 선택은 마을의 불빛들이다. 불빛들은 갓 핀 달리아 꽃송이처럼 싱싱하다. 세 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노동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의 은유이기도 하다. 아름다움보다는 쓸쓸함이, 기쁨보다는 아쉬움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도 그들은 말없이 불을 켜고 지상의 시간들을 지킨다. 어떤 불빛들은 밤을 새우기도 한다.

㉧ 그럴 때 마을의 집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형형색색의 등을 켜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샤갈의 그림에 나오는 꿈, 염소와 새들과 초승달과 어린 남매와 할머니가 함께 날개를 달고 초록빛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는 꿈.

운동회 날 풍선처럼 두둥실 날아오르는 그 집들을 보며 나는 박수를 친다. 그리고는 날이 선 낮으로 그 집들에 매달린 끈을 하나씩 끊어 버린다.

훨훨 날아가렴. 또 다른 어딘가에 마을을 이루고 새로운 꿈을 꾸렴. 그래, 나도 언젠가 그 마을에 이르러 새로운 날들의 시를 쓸 테니…….

- 광재구, 「묵언의 바다」 -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화성을 살리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지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② ㉠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소극적이지만 ㉣는 적극적이다.
- ③ ㉡는 현실에서의 탈출을, ㉣는 자연에서의 은둔을 꿈꾼다.
- ④ ㉠, ㉡, ㉣는 모두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 ⑤ ㉠, ㉡, ㉣는 모두 외부 세계에 의해 기대가 꺾이는 경험을 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떠나가는 배」와 「바다와 나비」는 떠남이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 문화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로 삼은 시가 향수와 귀향의 염원을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떠나가는 배」에는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이 걱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쫓겨나다시피 했던 당대 청년의 비애를 엿볼 수 있다. 「바다와 나비」는 막연한 동경을 품고 근대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났다가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당대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눈물로야 보낼 거냐'와 '아— 사랑하던 사람들'과 같은 표현에는 정든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화자의 걱정이 담겨 있군.
- ② (가)의 '쫓겨 가는 마음'과 '돌아다보는 구름'에서 일제의 억압과 수탈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던 당대 청년들의 비애가 드러나는군.
- ③ (나)의 '수심'을 알지 못한 채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나)의 '삼월달'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당대 청년들의 기대와 달리 근대 문명의 현실이 매우 냉혹했음을 말해 주는군.
- ⑤ (가)의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와 (나)의 '지쳐서 돌아온다'라는 것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향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군.

30.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눈물이 고여 시야가 부영게 흐려진 상황을 가리킨다.
- ② ㉡: 세상에 대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비유한다.
- ③ ㉢: 시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④ ㉣: 천상의 존재보다 지상의 존재가 더 소중함을 나타낸다.
- ⑤ ㉣: 집집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묵언(默言)은 흔히 종교적인 수행 방법으로 사용된다. 말을 하지 않는 단순한 행위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다. 물론 그것이 자아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본질적이며, 방법적인 묵언은 진실한 소통을 위한 우회라는 역설적 의의를 갖는다.

- ① '시'란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과 소통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글쓴이가 '시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군.
- ② '묵언'이라는 패찰을 드리웠던 시간이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만 열려 있던 시간들'이라는 것은 묵언 행위의 핵심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음을 말해 주는군.
- ③ '타인의 꿈과 욕망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고 '나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초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군.
- ④ '고요했던 그 시간'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에서 묵언으로 인해 자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묵언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시들이 천천히 날갯짓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시의 진실한 언어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 드러나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홀로 빈 언덕에 서 있는 늙은 가지 길기도 하여라
하늘이 특이한 물건을 냈으니 어찌 평범하겠는가
㉡ 고운 자태를 가지고 어찌 도리화와 다투겠는가
다만 곧은 마음 보존하여 눈서리를 업신여기네
추운 날씨인들 어찌 천년의 푸르름을 바꾸겠는가
성긴 그늘이지만 사시의 서늘함을 변치 않네
재목이 커서 끝내 쓰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오
일찍이 명당(明堂)*에 들어가 동량(棟梁)*이 되었다네.

- 유방선, 「늙은 잣나무」 -

* 명당: 임금의 조회(朝會)를 받던 정전(正殿).

* 동량: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이라는 뜻으로, 한 나라를 떠받칠 인재를 이르는 말.

(나)

㉢ 바회에 섰는 술이 늙연(凜然)훈* 줄 반가운데
풍상(風霜)을 격거도 여외는 줄 전혀 업다
언디타 봄비출 가져 고딜줄 머느니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貴)흔 줄를 뒤 아느니
춘광(春光)을 번폐(煩弊)호고* 엄상(嚴霜)이* 혼자 뛰니
어즈버 청고흔* 내 버디 다만 넝가 호노라

곧이 무흔(無限)호되* 민화(梅花)를 심근 뜻은
㉔ 눈 속에 곧이 뛰여 흔 비틴 줄 귀호도다
흐물며 그웁흔 향기(香氣)를 아니 귀코 어이리

㉕ 백설(白雪)이 즈즌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갓 곳 간 디 업고 대습히 푸르러세라
엇디흔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호느니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 늣연흔: 위엄 있고 당당한.
- * 동리: 동쪽 울타리라는 뜻으로, 국화를 심은 곳을 이르는 말.
- * 번폐호고: 마다하고.
- * 엄상익: 된서리에.
- * 청고흔: 맑고 고결한.
- * 곧이 무흔호되: 꽃이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며.

32.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가)와 달리 상징적 어휘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가), (나)에서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나)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33.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늣은 가지'가 드리워진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대상이 갖는 비상함과 의연함을 부각한다.
- ② ㉒: '도리화'라는 대조적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이 아니라 내적 속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③ ㉓: '바화'와 '솔'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위엄 있고 당당하게 서 있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한다.
- ④ ㉔: '눈'과 매화의 색채를 대비하여 대상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⑤ ㉕: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창'을 여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드러낸다.

34. <보기 1>과 <보기 2>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관물(觀物)'이란 사물을 본다는 뜻으로, 시각적 자극을 수용하기만 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대상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조선 시대 사대부는 관물의 방식으로 식물을 봄으로써 그것이 발하는 일시적 아름다움보다 어떤 시련에도 퇴색하지 않는 영원성에 주목하였다. 식물에서 변치 않는 지조와 절의를 발견하고 식물과 인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를 드러냈던 것이다.

<보기 2>

유방선의 「늣은 잣나무」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온 늣은 선비의 삶을 예찬한 작품이고, 이신의의 「사우가」는 선비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덕성과 기품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① (가)의 '동량'은 늣은 나무와 선비의 삶을 매개하는 동시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부각하는 시어로군.
- ② (나)의 화자가 여느 사람들과 달리 '동리'에 핀 '국화'의 귀함을 아는 것은 관물의 방식으로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이야.
- ③ (가)의 '특이한 물건'과 (나)의 '민화'는 모두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삶의 자세를 반영하고 있네.
- ④ (가)의 '늣서리'와 (나)의 '청풍'은 모두 대상이 지닌 가치를 시험하는 존재로, 대상이 직면한 시련을 상징하고 있어.
- ⑤ (가)의 '그늘'은 성글지만 변함없는 영원성을, (나)의 '온갓 곳'은 아름답지만 쉽게 변하고 마는 일시성을 함축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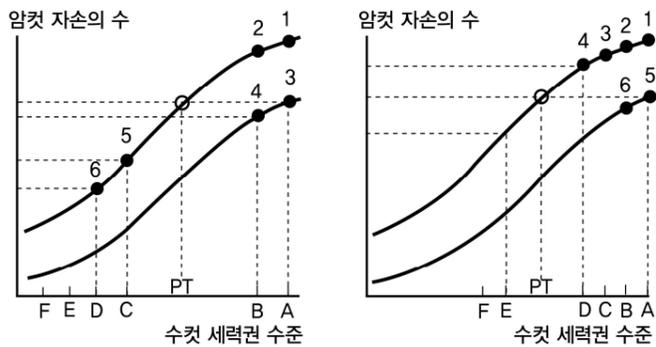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에는 양육 가능한 자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컷의 세력권 수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암컷이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중 어떤 혼인 제도를 선택할지 예측할 때 사용되는 생태학 이론이다. 이 모형은 수컷은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면서 자기만의 독점 영역인 세력권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반면, 암컷끼리는 서로 별다른 경쟁을 하지 않은 채 임의의 순서대로 수컷을 선택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모형의 또 다른 전제는 암컷이 수컷의 세력권 수준과 혼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수컷의 세력권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모든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 비슷하다면, 암컷 입장에서는 일부다처제보다 일부일처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암컷이 새끼를 키울 때 수컷 한 마리의 도움을 다른 암컷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그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 암컷의 수가 수컷의 수보다 부족할 때에는 일처다부제가 나타날 수 있다. 암컷을 둘러싼 수컷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때로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여러 마리가 혼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 수컷의 수가 일부일처제 하에서보다 많으므로 그 암컷은 더 많은 자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소수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 다른 수컷 세력권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일부다처제가 나타날 수 있다. 월등히 높은 세력권을 구축한 수컷이 기혼일지라도, 수컷을 다른 암컷과 공유했을 때 생기는 손실보다 수컷의 수준 높은 세력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클 경우, 암컷은 수준 낮은 세력권을 차지하고 있는 열등한 미혼의 수컷을 포기하고 기꺼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감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그림 2>
(단, A~F는 해당 세력권을 구축한 수컷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수컷 여섯 마리의 세력권 수준이 각각 A~F일 때, 이 두 가지 세력권 수준 분포 하에서 암컷 여섯 마리가 번호 순서대로 수컷을 선택한 상황을 보여 준다. 두 그림에서 상위의 곡선은 일부일처제를 선택한 암컷의 자손 수, 하위의 곡선은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암컷의 자손 수를 나타낸다. 이때 일부다처제는 항상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가 짝을 짓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1>에서 1번 암컷과 2번 암컷은 각각 다른 수컷들보다 우수한 세력권을 구축한 두 수컷 A와 B의 첫 배우자가 되고, 3번 암컷은 세 번째로 우수한 세력권을 보유한 수컷 C의 첫 번째 배우자가 되기보다는 수컷 A의 두 번째 배우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수컷 C를 선택했을 때보다 수컷 A를 선택했을 때 양육할 수 있는 자손 수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4번 암컷도 수컷 B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암컷이 미혼인 수컷 C와 D를 차례로 선택하고 나면, 수컷 E와 F는 짝짓기에 실패한다.

<그림 2>처럼 수컷 세력권 분포가 이루어지면 3번 암컷과 4번 암컷은 일부일처제의 첫 번째 배우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5번 암컷과 6번 암컷은 수컷 A와 B의 두 번째 배우자가 된다. 암컷이 미혼인 수컷의 열악한 세력권을 포기하고 기혼인 수컷의 우수한 세력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그 기혼 수컷의 세력권의 최저 수준을 ‘일부다처제 임계점(PT)’이라 하는데, 이 PT의 위치에 따라 암컷의 정착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모형은 유럽과 아시아의 습지 갈대밭에 주로 서식하는 개개비라는 조류의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봄에 새롭게 찾아온 암컷 열세 마리는 하루 종일 수컷 열두 마리의 세력권을 탐색한 후에 짝을 선택했다. 암컷 여섯 마리는 두 마리씩 우수한 세력권을 가진 수컷 세 마리의 배우자가 되었고 나머지 일곱 마리는 미혼의 수컷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암컷은 경우에 따라 기혼인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도 한다.
- ② 암컷이 짝짓기 상대를 결정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다.
- ③ 스웨덴 생태학자들이 짝짓기를 분석한 사례에서 수컷 두 마리는 배우자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 ④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에 따르면, 일부다처제 임계점은 모든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⑤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에 따르면, 암컷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것은 암컷끼리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36. ‘수컷의 세력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컷이 다른 수컷들과 공유하지 않는 영역이다.
- ② 수준이 높을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암컷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 ④ 암컷이 양육할 수 있는 자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⑤ 한 마리의 암컷이 한 마리의 수컷의 도움을 온전히 받는 영역이다.

37. 윗글의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의 표는 유럽 바위 종다리의 세 개체군이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했을 때 각각 나타난 혼인 제도와 그에 따른 수컷과 암컷의 마리 당 평균 자손 수에 대한 자료이다. 단, 유럽 바위 종다리는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하에서 두 마리의 배우자만을 거느리며, 각 서식지에서는 하나의 혼인 제도만 나타났다.

혼인 제도	수컷과 암컷의 마리 당 평균 자손 수	
	수컷	암컷
일부일처제	5.0	5.0
일부다처제	7.6	4.6 3.0
일처다부제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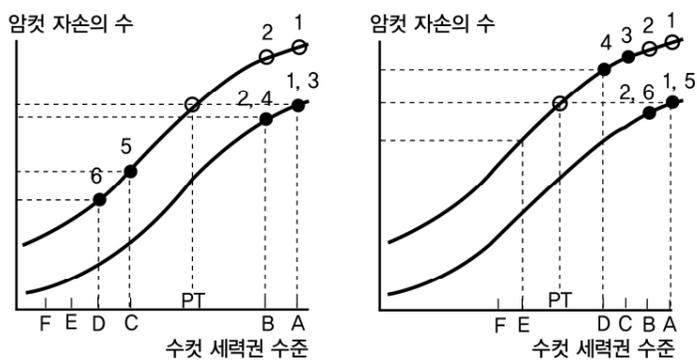
- ① 일부일처제 하의 개체군에서 수컷들의 세력권 수준은 서로 비슷할 것이다.
- ② 일처다부제 하의 개체군에서는 암컷들의 수가 수컷들의 수보다 적을 것이다.

- ③ 일부다처제 하의 개체군에서 수컷의 수가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혼인 제도가 일부일처제로 바뀔 것이다.
- ④ 일부다처제 하의 개체군에서 암컷들의 평균 자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두 암컷이 수컷의 양육 도움을 공유할 때 한 암컷이 손실을 입기 때문일 것이다.
- ⑤ 일부일처제 하의 개체군의 암컷의 평균 자손 수가 일처다부제 하의 개체군의 암컷의 평균 자손 수보다 적은 것은 암컷 한 마리당 양육의 도움을 주는 수컷의 수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38.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은 기혼인 수컷이 다른 암컷을 배우자로 받아들여도 기존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 배우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의 배우자가 받는 수컷의 양육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다처제 하에서 첫 번째 배우자가 실제로 양육한 자손의 수는 두 번째 배우자가 양육한 자손의 수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윗글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그림 3>과 <그림 4>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3>

<그림 4>

(단, ○는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의 관점에서 기대되는 자손의 수이고, ●는 ㉠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자손의 수이다.)

- ① ㉠의 관점에서 <그림 1>과 <그림 3>을 보니, 1번 암컷보다 2번 암컷이 양육할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겠군.
- ② ㉠의 관점에서 <그림 3>과 <그림 4>를 보니, 세력권 수준이 가장 높은 수컷을 선택한 암컷이 가장 많은 자손을 양육하는 것이겠군.
- ③ ㉠의 관점에서 <그림 3>과 <그림 4>를 보니, PT 이상의 세력권 수준을 가지는 수컷들이 많을수록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암컷에게 더 유리하겠군.
- ④ ㉠의 관점에서 <그림 2>와 <그림 4>를 보니, PT가 수컷 C와 D의 세력권 수준 사이에 있다면 1번 암컷과 4번 암컷이 실제로 양육한 자손 수는 동일하겠군.
- ⑤ <그림 1>과 <그림 3>을 보니, PT 이하의 세력권 수준을 가진 수컷을 선택한 암컷들은 자손 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의 관점을 반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겠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엇모리] 한 곳을 당도하니, 이는 곧 ㉠인당수라. 광풍(狂風)이 크게 일어, 어룡(魚龍)이 싸우는 듯, 벽력이 나리는 듯, 대양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쳐, 안개 뒤섞어 저저진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점그러져 천지 적막한데, 까치늪누리* 떠들어와 뱃전머리 탕, 물결이 우르르르르르 출렁 출렁. 도사공 영좌 이하 황황 급급하여 돛 짓고, 단 놓고, 고사기계(告祠器械)*를 차린다. 한 섬 쌀로 밥 짓고, 온* 소 잡고, 동이 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위 찾아 갈라놓고, 산 돼지 잡아 큰 칼 쫓아 기는 듯이 받쳐 놓고, 심청을 목욕시켜, 의복을 정히 입혀 뱃머리 앉힌 후, 도사공 거동 보소. 의관을 정제하고, 복채를 양손에 쥐고,

[자진모리] 복을 ‘두리둥 둥 두리둥 둥둥둥 둥 두리둥 둥둥 둥둥둥둥둥’

(중략)

복을 ‘두리둥 둥둥둥 둥둥둥둥’ 고사를 지내더니,
 “심 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이 말 듣고,
 “아이고, 하느님! 명천(明天)이 감동하사, 아버의 허물일랑 심청 몸으로 대신하옵시고, 아버의 어둔 눈을 밝게 점지하옵소서! 여보시오, 사공님네! 도화동이 어느 쪽으로 있소?”
 도사공이 복채를 들어,
 “저기 구름 담담한 저 밖이 도화동으로소이다.”
 심청이 이 말 듣고, 섰든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버지! 불효 여식 청이는 요만큼도 생각 말으시고, 어서 눈을 뜨옵시어 천지만물 다 보시고, 아들 낳고, 딸을 낳어 후사를 전케하옵소서! 허허, 내가 웬일이냐? 위친하여 죽는 몸이 우는 일이 웬일이냐?”
 심청의 거동 보아라. 뱃전으로 우루루루루, 새별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더니, 만경창과 갈매기격으로 뿔뿔 물에 풍!

[A]

[중모리] 묘창해지일숙(渺滄海之一粟)*이라. 위리렁출렁 간데 없네. 흐르던 물도 머물렀고, 유유한 갈매기도 빠지던 데를 굽어보며, ‘깍 까르르르르르’ 울어 있고, 무심한 기러기도 돛대 우에 높이 떠서 ‘뚜루루 길룩’ 울어 있고, 사공들도 목이 메어 눈물이 듣거니 뱃머리 말 못하고 서 있는데,
 영좌가 울음을 내어,
 “못 보겠구나. 못 보겠네. 사람의 인정(人情)으로는 못 보겠네. 우리가 연년이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다 제수하니, 우리 후사 잘 될쏘냐? 여보소, 동무네들. 명년부터는 아사(餓死) 지경을 당하더라도 이놈의 노릇을 그만두세. 닳 감고 노를 저어라. 참나무 키를 잡고 돛을 달아라. 용충줄* 벌리고 고작을 채워라.”
 “어그야 차! 어그야 차!”

[진양조] 등등 등등 떠나간다. 행화는 풍랑을 좇고, 명월은 해문(海門)에 잠겼도다.

이때에 옥황상제께옵서 남해 용왕께 분부하시되,
“금일 오(午)시 초(初)에 출천대효(出天大孝) 심 낭자 인당수 들 것이니, 팔선녀로 옹위하여 ㉠ 수정궁에 모셨다가 인간으로 환송하되, 시각을 조금 어기거나, 물 한 점을 묻히거나, 모시기를 잘못하면 남해 용왕은 천벌을 주고, 수국 제신은 죄를 면치 못하리라!”

분부가 지엄하니, 용왕이 황겁하여 수국 충신 별주부와 백만 인갑 제장이며, 각 궁 시녀로 용궁 교자를 등대(等待)하고 그 때를 기다릴 적, 과연 오시에 백옥같은 한 소저가 물에 풍덩 빠져들거늘, 시녀 등이 고이 맞이하여 교자 위에 모시는구나.

[아나리] 심청이 정신 차려,

“나는 진세천인(塵世賤人)이라 어찌 감히 용궁 교자를 타오리까?”

시녀 등이 여짜오되,

“상제의 분부오니, 만일 아니 타옵시면 우리 수궁은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사양하다 못하여 교자 위에 올라앉으니, 시녀 등이 모시고 수정궁으로 들어갈 제,

[옛모리] 위의(威儀)도 장할씨고. 천상 선관선녀들이 심 소저를 보려고 좌우로 벌였는데, 태을진군(太乙眞君) 학을 타고, 안기생(安期生) 난(鸞) 타고, 구름 탄 적송자(赤松子)며, 사자 탄 갈선옹(葛仙翁)과 고래 탄 이적선(李謫仙), 청의동자 홍의동자가 쌍쌍이 모셔 있고, 월궁 향아 마고 선녀 남악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모셨는데, 수정궁을 들어가며 풍악을 갖출 적, 왕자 진의 봉피리, 괘 처사 죽장고, 성연자 거문고, 장량의 옥통소, 혜강의 해금이며, 완적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 능과사 보허사, 상영은 비파 타고, 고점리 축을 치고, 우의곡 채련곡을 곁들여 노래할 적,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궁궐을 바라보니, 주궁패궐(珠宮貝闕)은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이요, 곤의수상(袞衣繡裳)은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이라.* 산호주렴에 백옥안상 광채도 찬란하구나. 선녀들이 나열하여 주안을 드리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에 천일주 가득 담고, 한 가운데 삼천벽도를 덩그렇게 괴었네. 삼일에 소연 하고, 오일에 대연 하여 극진히 봉공한다.

- 작자 미상, 「심청가」 -

* 까치늪누리: 사나운 물살.

* 고사기계: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 온: 온전한.

* 묘창해지일숙: 푸른 바다 속의 곡식 한 알과 같이 작음.

* 용총줄: 돛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매어놓은 줄.

*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 온갖 보배로 꾸민 호화스런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조용하고, 곤룡과 수를 놓은 옷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다는 말.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이 진행될수록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독백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일관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4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표상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인물에게 닥친 위기가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③ ㉠에서 ㉡으로 이동하면서 인물의 처지가 바뀌고 있다.
- ④ ㉠과 ㉡은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형상화되고 있다.
- ⑤ ㉠과 ㉡은 과장된 비유를 통해 초월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41. <보기>는 윗글의 이본(異本)에서 [A]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을 뚝뚝 울리면서,
“심청아 시급하다. 어서 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뱃머리에 나서 보니 새파란 물결이며 울울울 바람 소리, 풍랑이 대작하여 뱃전을 탕탕 치니, 심청이 깜짝 놀라 뒤로 펍 주저앉으며,
“에고 아버지, 다시는 못 보겠네. 이 물에 빠지면 고기밥이 되겠구나.”
무수히 통곡하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사람 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아드득 물고,
“아이고 나 죽네!”
소리 하고 물에 가 풍, 빠졌다 하되,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이 될 수 있다. 두 손을 합장하고 하나님 전 비는 말이,
“도화동 심청이가 맹인 아버 해원키로 생목숨이 죽사오니 명천이 하감하사 캄캄한 아버 눈을 불일내의 밝게 떠서 세상 보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한 후에 선인들 돌아보며,
“평안히 배질하여 억십만금 퇴를 내어 고향으로 갈 적에, 도화동 찾아 들어, 우리 부친 눈 떴는가 찾아보고 가오.”
뱃머리에 썩 나서서 만경창과를 제 안방으로 알고 풍 빠지니, 경각 간에 바람이 식아지고 물결이 고요하니 사공들 하는 말이,
“풍속낭정하기 심 낭자의 덕이로다!”
술 고기 나눠 먹고 삼승 돛 고작 채어 양편 갈라 떡 부치고 남경으로 향하니라.

- 신재효 개작, 「심청가」 -

- ① [A]에서는 <보기>에 비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보기>와 달리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는 [A]와 달리 인물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A]와 달리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장면화하여 대비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 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 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런 노인이었다. 한테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썽 그 가치*나 수술마저 한사코 사양을 해온 노인이, 나이 여든에서 겨우 두 해가 모자란 늘그막에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탄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① 노인은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다.

지붕 개량 사업이 애초의 허물이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단* 아니면 기와들을 엮는단다.”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다.

(중략)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었다. 나는 불시에 다시 그 노인에 대한 나의 빚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 가는 장죽불에만 신경을 쏟고 있었다. 하더니 이윽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을 삼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 한숨 끝에다 무심결인 듯 덧붙이고 있었다.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방 한 칸쯤이나 더 늘여 내고 지붕도 도단으로 엮어 버리면 실진 하더라도…….”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내비친 것이었다.

“오늘 당할지 내 당할지 모를 일이지는 하다면, ㉠ 날짐승 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저런 옷케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떤 땐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지기도 하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당신의 소망을 분명히 해 버리고만 셈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 대해선 빛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도 내년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거나 할는지. 하기사 면사람들 무서워 집을 고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름이제, 늙은이 냄새가 싫어 그런지 그래도 한테서 등짝 붙이고 누울 만한 방 놔두고 밤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릴 얻어 다니는 저것들 에미 꼴도 모른 채하기는 못 할 일이나.”

내가 아예 대꾸를 않으니 노인은 이제 ㉡ 혼잣말 비슷이 푸념을 계속했다. 듣다 보니 그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주겠다, 일을 일단 저지르고 들었더라면 큰돈이야 얼마나 더 들 일이 있었을라더냐…… 남정네가 없어 남들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쉽진 못했겠지만 네 형수가 여름 한철만 받을 매주기로 했으면 건넛집 용석이 아배라도 그냥 모른 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흙일을 돌볼 사람은 그 용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기둥을 갈아 널 나무 가대는 이장네 산에서 헐값으로 몇 개를 부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인의 장죽 끝에는 이제 불기가 꺼져 식어 있었다.

노인은 ㉢ 연신 그 불이 꺼진 장죽을 빨아 대면서, 한사코 그 보조금 5만 원과 이웃의 도움이 아까워서라도 일을 단념하기가 아쉬웠다는 투였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뿐이고, 그럴 뻔했다는 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선 어떤 형식으로도 직접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식이었다. 말하는 목소리도 끝끝내 그 체념기가 짙은 특유의 침착성을 잃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맘 같이만 된다면야 나이 먹고 늙은 걸 설워 안 할 사람이 있을라더냐.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 가는 노망기 한가지제.”

종당에는 그 당신의 은밀스런 소망조차도 당신 자신의 실없는 노망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 한마디 말참견도 없이 눈을 감고 잠이 든 채 잠잠히 누워만 있던 아내까지도 그것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다.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꺾어 떠보였었다.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없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

- 이청준, 「눈길」 -

* 가치: 이가 빠진 자리에 만들어 박은 가짜 이.

* 도단: 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인 함석의 잘못.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립적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시대상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서술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그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43.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은 지붕을 개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확장할 것을 꿈꾸고 있다.
- ② ‘노인’은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 ③ ‘노인’은 집을 고쳐야 하는 이유로 남의 집에 잠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형수’를 들고 있다.
- ④ ‘노인’은 지붕 개량에 대한 바람이 노망기 탓에 일시적으로 생겼던 것임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 ⑤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는 점에 기대어 자신의 속뜻을 던지지 내비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노인’이 가족은 아랑곳 않을 만큼 판단력을 상실한 데 대한 ‘나’의 우려가 드러난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나’를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려는 ‘노인’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 ‘나’가 자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 대한 ‘노인’의 원망의 표현이다.
- ④ ㉣: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자신의 소망이 무산될까 조바심하는 ‘노인’의 심리를 암시한다.
- ⑤ ㉣: ‘노인’과 ‘나’의 대립에 간여하지 않으려는 ‘아내’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준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눈길」은 ‘근대화 세대’의 초상을 그려 내고 있다.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나’는 이제 노모를 봉양할 나이가 되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다. 효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 갚을 의무도 없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윤리 의식의 변화마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 ① ‘노인’이 ‘나’에게 ‘아무 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뉘’을 못했다는 것에서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을 마치고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는 것은 부모를 봉양할 나이가 되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말해 주는군.
- ③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임을 ‘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자식 세대의 윤리 의식이 달라진 데 대한 ‘노인’의 절망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눈을 감은 채 ‘빛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한 ‘나’의 심리적 방어 기제의 작동을 보여 주는군.
- 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느냐며 ‘나’를 나무라는 것에서 ‘아내’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효 의식을 경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